

광주 SI 페퍼스, 위기관리 능력 키워야

초·중반 접전 벌이다 한번 흔들리면 순식간에 대량실점 '악순환' 엘리자벳에 공격 의존도 너무 커 ... 박경현·이한비 공격 늘려야 내일 페퍼스타디움서 IBK기업은행과 리턴매치 2승 절호의 기회



AI페퍼스가 최악의 경기를 뒀고 2승에 도전한다.

AI페퍼스는 지난 13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시즌 V리그 2라운드 첫 경기에서 현대건설에게 0-3(18-25, 17-25, 18-25)으로 완패했다.

1라운드에서 깜짝 1승까지 올리며 기세를 올리던 AI페퍼스. 1라운드에서 전승가도를 달리던 현대건설을 5세트까지 몰아붙이며 유일하게 승점을 뺏은 전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약점을 고스란히 간파당한 듯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우려했던 위기 관리 능력이 여전히 부족했다. 경기 중반까지 접전을 펼치다가도, 기세에서 밀리자 순식간에 점수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1세트는 12-12 상황에서 박경현의 서브가 아웃라인을 넘어가고, 야스민의 오픈 공격과 이다현의 블로킹에 순식간에 3점을 내줬다. 이후 1세트가 18-25로 벌어질 때까지 힘을 쓰지 못했다.

2, 3세트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2세트에서는 10-6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김연건의 디그와 양효진·이다현의 블로킹에 공격이 번번이 막히며 쉽게 역전을 허용했다. 역시 7-8점까지 점수차가 벌어

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주포' 엘리자벳의 높은 의존도도 독이 됐다. 엘리자벳이 흔들리자 팀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

1세트에서 공격성공률 23.08%에 그치며 고전했던 엘리자벳은 3세트가 끝난 뒤에도 공격 성공률 35.29%에 머물렀다.

세터 이현이 레프트·센터로 볼을 넘겨주며 돌파구를 찾았지만, 하혜진과 이한비는 각각 공격 성공률 25%, 21.43%만을 기록하며 침묵했다. 박경현이 8득점(공격 성공률 46.15%)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팀 공격 성공률은 30.23%로 딱 떨어졌다.

빈틈을 노리는 양효진·야스민의 공격에 수비진이 흔들리기도 했다. 이날 AI페퍼스는 리시브 효율이 20.69%에 그쳤다. 서브를 받아내더라도, 80%는 세터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볼이 튀어나간 셈이다. 야스민 등의 강력한 스파이크서브에 서브에 이스로 8점이나 내줬다. 리시브가 약하다보니 공격도 침묵하는 도미노현상이 빚어졌다.

자기 약점을 분석한 AI페퍼스는 16일 리턴매치에 나선다.

16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IBK기업은행과 2번째 경기를 치른다.

기업은행도 AI페퍼스와 맞대결을 '이를 갈며' 기



지난 13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AI페퍼스와 현대건설의 도드람 2021-2022시즌 V리그 경기. AI페퍼스 박경현(왼쪽부터)과 엘리자벳, 하혜진이 사인을 주고받으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KOVO 제공)

다리고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7전 7패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라운드에서 신생팀 AI페퍼스에게 '첫 승'을 헌납하며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기업은행전 이후 AI페퍼스의 팬층도 급성장

다. 지난 2일 흥국생명전 홈경기에서는 관중 수 1409명, 9일 기업은행전 원정경기에서는 1335명이 모였다. 13일 현대건설전에서는 홈경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 2422명의 관중이 몰렸다.

AI페퍼스가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국 배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각격의 '2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4일 강원도 춘천 라비에벨CC에서 열린 'SK실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2021' 최종라운드에서 우승한 유해란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 출신 유해란, KLPGA 시즌 최종전 우승

시즌 2승으로 피날레 장식

박민지 대상·상금왕·다승왕 차지

영암 출신 유해란(20)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시즌 최종전을 우승으로 장식했다.

유해란은 14일 강원도 춘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울드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SK실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바디 5개에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우승했다.

유해란은 지난 9월 엘크루 TV조선 셀러브리티 프로암 제패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통산 4승째다.

우승 상금 2억 원을 받은 유해란은 상금랭킹 5위(7억9574만원)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제주도에서 2승, 대부도에서 1승 등 앞서 3차례 우승을 모두 섭에서 따냈던 유해란은 내륙 코스에서 처음 우승을 맛봤다.

1라운드부터 사흘 내내 선두를 달린 끝에 '와이 어투와이어' 우승을 달성한 유해란은 지난해 이 대회 최종 라운드 18번 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낸 바람에 1타차 2위를 했던 아쉬움도 털어냈다.

250번째 출전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한 박주영은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 준우승(8언더파 208타)에 만족해야 했다. 3타를 줄인 이가영(22)이 3위(5언더파 211타)에 올랐다.

공동 4위(4언더파 212타)에 오른 장하나(29)는 최저타수상(69.9088타)을 확정했다.

송가은(20)은 공동 14위(1언더파 215타)에 이름을 올려 신인왕을 손에 넣었다.

전날 컷 탈락한 박민지(23)는 대상을 확정해 상금왕과 다승왕과 함께 3관왕을 굳히는 등 개인 타이를 주인공이 모두 가려졌다. /연합뉴스

'홀드왕' KIA 장현식 독한 겨울 준비

"아프지 않도록 준비"

내년에도 페이스 유지"

인내로 '홀드왕'을 만든 장현식이 더 혹독한 겨울을 맞는다.

KIA 타이거즈 장현식은 올 시즌 '믿음'의 이름이었다. 8회 장현식은 팀의 승리를 잇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시즌 막판에는 경험이라는 무기까지 더해지면서 장현식은 철벽 불펜이 됐다. 위기 상황에는 좀 더 일찍, 더 길게 마운드에 올라 멀티이닝까지 소화하면서 불펜에서 가장 많은 76.2이닝을 소화했다.

타이거즈 기록에도 이름을 남겼다.

지난 9월 15일 롯데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시즌 21번째 홀드를 수확하면서 심동섭의 타이거즈 최다 홀드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어 10월 한 달 13경기에서 12이닝을 0.75의 평균자책점으로 막고 11홀드를 더했다. 34홀드로 시즌을 끝내면서 '우승팀' KT 주권을 누르고 '홀드왕'에 등극했다.

올 시즌 팀 유일의 타이틀 홀더이자 타이거즈 역사상 첫 '홀드왕'이다.

장현식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기록을 만들고, 처음 한 것 만으로도 기쁘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표였으면 좋겠다"고 홀드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장현식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시즌과 결과다. 그는 퓨처스 캠프에서 조용히 시즌을 준비했다. 팀에서 생각했던 자리도 불펜이 아니라 대체 선발이었다.

하지만 위기의 마운드에서 장현식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최고의 필승조로 날개를 폈다. 독하게 준비한 게 결과로 나타났다.

2020시즌 NC와의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기대에는 부족한 시즌을 보냈다. 올 시즌에도 마운드의 상수는 아니었다.

장현식은 "이대로 하면 유니폼을 벗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 자신한테 속이 상했다.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는 못했던 것 같다. 열심히 준비하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견뎌냈다"고 1년 만에 이룬 반전을 이야기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장현식은 독하게 운동을 했다. 시즌 중에도 웨이트와 러닝 등을 잊지 않았다. 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인내'로 버텼다.

장현식은 "좋은 변화가 있었다. 운동을 1년 내내 해야 한다. 안 하면 아프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했다. 나중에는 중독처럼 먼저 하게 됐다"며 "조금이라도 하고, 움직이면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게 됐다. 하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



장현식

명했다.

몸은 탄탄하게 채워졌지만, 마음은 비웠다. 육신을 버리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장현식은 "불안감을 떨친 게 주효했다. 반드시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며 "격정과 다르게 아프지 않고, 품이 장착됐다. 예전보다 힘은 조금 쓰는데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전에는 쓸데없는 힘만으로도 던졌다. 많이 던지면서 여유도 생겼다"고 밝혔다.

짧은 휴식을 끝낸 장현식은 마무리 캠프를 통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이야기한 장현식은 더 독하게 겨울을 보내고, 새 시즌을 맞을 계획이다.

장현식은 "1년 내내 잘하기 위해서는 비시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더 충실하게 준비할 생각이다"며 "아프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고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내년에도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대 팀으로 2017년 KIA를 만났을 때 팬들의 응원과 타순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10승을 못했다(웃음). 광주에서 안 좋았다"며 "팬들의 그 뜨거운 응원을 받아냈다. 내년에도 '현식이'가 던져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 나로 인해 팀의 투지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서 더 순위가 올라가면 좋겠다. 내년에는 포스트 시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지킬 준비를 하겠다. 몸을 잘 만들어야 될 때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뜨거운 비시즌"을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